

# Walking along Dreamy Scenery

## 선자령 동화 속 설경을 거닐다

선자령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과 강릉시 성산면 경계의 백두대간 주능선에 우뚝 솟아 있는 높이 1천157m의 산이다. 완만한 경사의 등산로에 풍력발전기가 있는 동화 같은 풍경,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어 트레커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새하얗게 눈 덮인 겨울 산행은 백미로 꼽힌다.

국내 3대 트레킹 명소 중 하나인 선자령을 소개한다.

사진 이진욱 기자·글 임동근 기자







“선자령을 낭만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풍력발전기와 목장, 그리고 푸른 바다이다. 겨울에 하얗게 눈마저 쌓이면 그곳은 동화 속의 예쁜 풍경으로 변신한다.”

선자령(仙子嶺)은 대관령이나 추풍령 같은 고개가 아니다. 정상 높이가 해발 1천157m인 엄연한 산이자 백두대간의 주능선이다. 최근 대관령마을 휴게소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바우길 1구간 즉 '선자령 풍차길'이 인기를 얻으면서 지리산 둘레길, 제주도 올레길과 함께 전국 3대 트레킹 구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겨울에 눈이 쌓이면 등산로 주변으로 펼쳐지는 동화 같은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아든다.

선자령 트레킹은 대관령마을 휴게소에서 시작한다. 흔히 국유림관리소가 있는 등산로 입구에서 출발하지만 대관령 양떼목장이 있는 방향으로 올라도 무방하다. 정상까지의 총 거리는 등산로 입구에서 5km, 양떼목장 방향에서 5.8km로 차이가 나는데, 오를 때의 풍경은 등산로 입구 쪽이 더 낫다.



1 트레커들이 눈 쌓인 선자령을 오르고 있다. 2 등산로 주변에서는 눈 쌓인 계곡을 볼 수 있다. 3 겨울에는 방한 재킷은 물론 아이젠, 스패츠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대관령마을 휴게소의 해발고도는 860m로 선자령 정상과 불과 297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오르는 데 힘들지 않다. 웬만큼 기본 체력만 갖췄다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등산로 입구에서 이어지는 완만한 능선을 2.5km 정도 걸으면 풍력발전기가 휘도는 이국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계속되는 완만한 오르막이지만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정상에 도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정상에서 동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볼 수 있는 강릉 시내와 드넓게 펼쳐진 동해의 풍경도 선자령 트레킹의 백미로 꼽힌다.

양떼목장으로 향하는 하산 길은 오를 때보다 800m 더 멀다. 무작정 내려가기만 하는 길도 아니다. 조금 힘에 부치는 오르막이 두 번 나타난다. 숲과 작은 개울을 지나는 길이어서 풍경도 오를 때보다는 못하다. 한 가지 장점이라면 오를 때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몰아치던 바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선자령 트레킹 구간은 총 10.8km로 3시간 30분~4시간 정도 소요된다. 전문 트레커에게는 싱거운 곳일 수 있지만 초보가 오르기에는 적당하다. 그러나 산은 산이다. 특히 겨울에는 두꺼운 옷과 장갑, 모자는 물론 등산화와 아이젠, 스패츠 등의 장비를 꼭 챙겨야 한다.







4 능선길을 걷다 보면 주변 산등성이에 들어선 하얀 풍력발전기들이 휘도는 동화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풍력발전기가 인접한 등산로를 거닐면 날갯새리가 커다랗게 들려온다.



3 무선지표소 삼거리부터는 숲길과 능선길이 이어진다. 갈림길이 몇 차례 나타나지만 무조건 '선자령' 팻말 방향으로 가면 된다. 능선길에 들어서면 바람이 세차게 불어온다.



2 등산로는 완만한 오르막을 지나다 800m 지점에서 임도로 접어든다. 다시 평탄한 임도를 1km 걸으면 무선지표소 삼거리가 나타나고 이곳에서 숲길로 접어들면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된다.



1 선자령 등산로 입구는 대관령마을 휴게소에서 동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입구에는 '대관령 국사성황당 입구' 표지석과 '선자령 등산로 안내' 표지판이 있다. 오른쪽으로 가면 등산로 입구이다.



5 등산로 입구에서 정상까지 총거리는 5km로 2시간 정도 걸린다. 정상에는 '백두대간 선자령' 표지석이 서 있다. 풍력발전기가 서 있는 산등성이는 물론 강릉 시내와 동해의 풍광도 볼 수 있다.



1 등산로 입구  
10 등산로 종점

양떼목장



6 정상에서 800m 정도 내려가면 갈림길이 나타난다. 표지판은 있지만 팻말이 파손돼 있고 갈림길이 네 개여서 자칫 길을 잘못 들어갈 수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의 폭이 좁은 길을 선택한다.



7 갈림길부터는 완만한 경사의 하산 길이 계속 이어진다. 능선길은 이내 숲길로 바뀌고 바람도 잦아들어 햇살이 비추는 한낮에는 포근함마저 느껴진다.



8 숲길은 계곡을 따라 이어지기 때문에 등산로를 거닐다 보면 얼음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눈이 쌓이고 얼어붙은 계곡 사이로 물이 흐르는 풍경은 빼놓을 수 없는 겨울 산행의 매력이다.

10 하산 지점은 등산로 입구에서 100m, 대관령마을 휴게소에서 400m 지점이다. 하산 총거리는 5.8km로 오를 때보다 800m 더 멀다. 그러나 정상에서의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에 불과하다.



9 하산 길에는 오르막이 두 번 나타난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파르지 않지만 조금 힘들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내 내리막이 나타나기 때문에 겁먹지 않아도 된다.

“선자령 트레킹은 등산로 입구에서 올라 양떼목장 방향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일반적이다. 쉽게 오를 수 있지만 바람이 강해 방한 장비를 꼭 챙겨야 한다.”



# 예쁜 펜션에서의 낭만적인 하룻밤

선자령 주변에는 예쁜 펜션과 대관령 자연휴양림, 모텔 등이 있어 하룻밤 묵어 가기 좋다. 특히 가까이엔 펜션이 산재해 있어 이용해 볼 만하다.



대관령마을 휴게소에서 차로 5~10분 거리에는 예쁜 펜션들이 들어서 있다. 대부분 내부 시설이 깨끗하고 2~5명이 이용할 수 있는 커플 룸과 가족 룸을 갖추고 있다.

선자령 바로 인근에는 이렇다 할 숙박시설이 없다. 그러나 대관령마을 휴게소에서 차로 5~20분 정도 이동하면 대관령 자연휴양림을 비롯해 펜션, 모텔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곳은 대관령마을 휴게소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펜션 단지이다. 대관령옛길 펜션(www.oldway700.com)을 비롯해 아침의 풍경(www.morningvill.co.kr), 구름위의 테라스(www.terrace700.co.kr) 등 예쁜 외관의 펜션들이 국도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대관령옛길펜션은 옐로, 바이올렛, 올리브 등 각기 다른 색깔의 건물 3개로 구성돼 있는데 2~5명이 묵을 수 있는 원룸 또는 복층 구조의 방 5~6개씩을 갖추고 있다. 비수기 1박 요금은 커플 룸이 주중 7만~9만 원(주말 9만~11만 원), 가족 룸은 주중 12만~14만 원(주말 14만~17만 원)이다. 또 성수기는 커플 룸이 13만~15만 원, 가족 룸이 18만~22만 원이다.

아침의 풍경은 커플 룸과 복층 커플 룸, 복층 가족 룸으로 구성돼 있다. 비수기 커플 룸이 주중 9만~12만 원(주말 12만~15만 원), 가족 룸은 15만~20만 원이며, 성수기는 커플 룸 15만~17만 원, 가족 룸 20만 원이다. 또 구름위의 테라스는 객실 면적에 따라 비수기 주중 9만~15만 원(주말 15만~25만 원), 성수기 15만~25만 원이다.

한편 10분 거리의 대관령면사무소 근처에 모텔들이 들어서 있지만 시설이 그리 좋지는 않으며, 1박 가격은 5만 원 내외로 싼 편이다. 이들 펜션과 모텔은 겨울에 비교적 한가한 편이지만 겨울 성수기(12월 15일~이듬해 1월 15일)에는 인근 용평리조트나 알펜시아리조트의 스키 인파가 몰려 북적거리기도 한다. 또 여름 성수기에는 미리 예약을 해야 방을 잡을 수 있다. Y

### 대관령 양떼목장

대관령마을 휴게소에서 150m 정도 산길을 오르면 닿는 대관령 양떼목장은 자녀 동반 가족이나 연인이 선자령을 찾는다면 꼭 한 번 방문할 만한 낭만적인 곳이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싱그러운 푸른 초원에서 양들이 풀을 뜯는 목가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뒤덮은 동화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목장을 한 바퀴 도는 산책로와 건초 먹이 주기 체험장, 움막집 등이 있다.

### → 대관령 양떼목장 가는 길

강원도 평창 황계 시외버스 터미널-대관령마을 휴게소 구간 버스 노선이 2013년 7월 신설됐다. 황계에서 오전 10시, 11시 40분, 오후 2시에 출발하며, 대관령마을 휴게소에서는 10분 후에 떠난다. 요금은 성인 1천100원, 중·고생 880원, 초등학생 550원이다. 선자령 등산로 입구는 대관령마을 휴게소에서 500m 동쪽에 자리한다.